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미가서**

평강의 왕

(미가 5:5-15)

원로목사 **이종윤**

이스라엘은 도시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열국의 침략을 받아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혀서 쇠고랑을 차고 신하들이 뒤를 이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 갈때 비로소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가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겸손하게 살라고 합니다.

1. 교회가 받을 은혜

“이 사람은 평강이 될것이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목자와 여덟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5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모든 일에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보통 평강이라는 말로 이해하지만 실상은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샬롬은 모든 좋은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 사업하는 사람이 번영하는 것, 농사짓는 사람이 추수할 것이 많은 것,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 등 이런 것 모두가 샬롬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좋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는 일어날 영적 지도자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국가의 지도자가 될터인데 그들은 교회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들이 세상을 치게 되는데 교회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칼로 앗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6절).

지도자들은 칼로,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원수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뛰어 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민족의 벽, 문화의 벽, 사회계층의 벽, 종교의 벽을 뛰어 넘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지만 마지막에는 복음이 승리하여 저들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7절)는 교회를 말합니다. 남은 자는 세상의 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극히 적은 수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세상으로 휩쓸려 갈 때 야곱의 남은 자는 마지막에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로 부터 내리는 이슬같은 풀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7절), “수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 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8절).

미가 선지자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이슬과 단비와 사자로 비유했습니다. 이슬과 단비는 축복의 상징

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삭막한 광야로 그곳에 하늘에서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슬과 단비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므로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기다리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만을 찾고 기다려야 합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계5:5). 사자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성도는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탄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망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야 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8절).

세상에는 신자보다 불신자의 수가 훨씬 많을 뿐더러 신자 가운데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하시더라”(9절).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아말렉전투에서 이긴 것과 같이 성도가 기도의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2.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11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군마나 병거를 의지하지말라고 하십니다(10절).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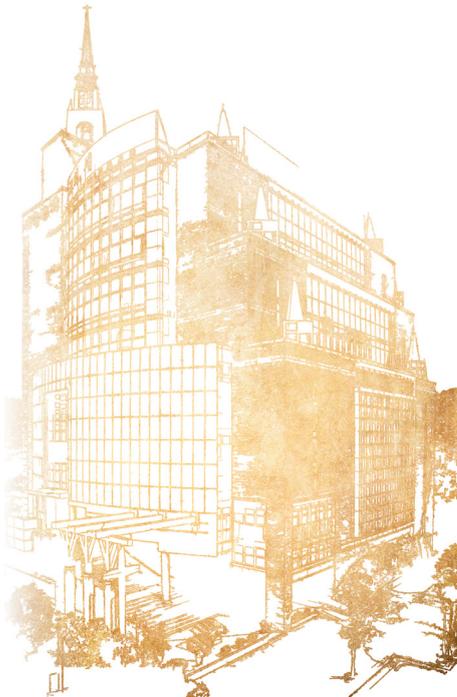
“내가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13절).

주상은 기념비를 말합니다. 기념비는 세우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상화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갇으리라 하셨느니라”(15절).

교회를 핍박한 국가,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단비를 맞으며 사자같이 승리하고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8년 섬김위원 봉사지원 신청

11월 19일(주)까지 사무국으로 제출

2018년도 섬김위원으로 봉사를 원하는 성도는 오늘 주보 삼지로 제공된 봉사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 19일(주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봉사하고 있는 부서에서 계속 봉사하

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또 다시 봉사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봉사자 중 부서를 옮기기를 원하는 성도와 내년 새로이 봉사를 원하는 성도들만 제출하면 된다.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김광민/박민숙 오유식/이봉규 임송자 양옥자 이강전/양길순 이남성/최영란 신재근 채교천/정금희 박충구/문순승 양세정/오병호 김봉배 채덕희 유덕자 김석봉/박동희 최원석/박길희 박동식 최용준 김철수/김서윤 조응식/유명석 손명준 하 숙 유미영 최봉애 고영숙 오영숙 유정민 이희선 청년부 이종일 이윤희 곽선자 고석규/한치중 서은석/김미성 13교

구 바자수익금 김태형 노제현/ 김정희 문분순 이태순 남영주 추석우/박정애 유 신 김형택/윤갑숙 정수길 무명 2명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서울교회장로회)

2017 사명자 대회 은혜롭게 진행 중

특별새벽기도회 : 11. 20(월) ~ 25(토) 새벽 5시-6시, 강사 : 김성봉 목사

사명자대회가 10월 8일부터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목회〉에 부르심을 받았나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무너진 서울교회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사명자로 불러주셨다. 현재까지 자율기도를 신청한 성

도들이 184명이 참석하여, 1일 평균 125명이 뜨겁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성경통독은 지난주까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부터 로마서12장까지 100명 이상이 참여하여 120독 이상을 통독하고 있다.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았던 성도들은 함께 동참하여 사명자로서 서울교회의 성벽재건에 나서기를 호소한다.

2017년 사명자대회 성경통독 현황

구분	1 주 (10 / 9 - 10 / 14)				2 주 (10 / 16 - 10 / 21)				3 주 (10 / 23 - 10 / 28)			
	성 경	통독횟수			성 경	통독횟수			성 경	통독횟수		
		집계	추가	최종		집계	추가	최종		집계	추가	최종
월	마1 ~ 마7	77	44	121	막16 ~ 눅6	77	25	102	요19 ~ 행4	87	87	
화	마8 ~ 마14	75	45	120	눅7 ~ 눅13	77	25	102	행5 ~ 행11	87	87	
수	마15 ~ 마21	74	43	117	눅14 ~ 눅20	77	24	101	행12 ~ 행18	88	88	
목	마22 ~ 마28	75	43	118	눅21 ~ 요3	77	24	101	행19 ~ 행25	87	87	
금	막1 ~ 막7	78	44	122	요4 ~ 요10	81	27	108	행26 ~ 롬4	88	88	
토	막8 ~ 막15	68	45	113	요11 ~ 요18	77	24	101	롬5 ~ 롬12	86	86	
성경통독 참여자	1주차 집계	65	41	106	2주차 집계	68	26	94	3주차 집계	75	75	

영아부 예배

오늘부터 402호

영아부(부감 이갑연 권사)는 영아부 예배가 1월 15일 이후 영·유아부 연합으로 드리던 것을 교회가 안정되면서 오늘부터 유아부와 분리하여 영아부실(402호)에서 드린다. 아기는 영아부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은 분당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란다. 또한 영아부를 섬기실 교사(여)를 모집한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



▶ 지난 주 찬양예배시간에 러시아에 파송된 김영호 선교사가 선교 10년을 맞으며 "Missio Dei(하나님의 선교)"라는 제하의 설교와 선교 보고를 하였다.



수능기도회

토요기도회

11월 11일(토) 오전10시 / 501호

수능 당일 기도회

11월16일(목) 오전 8시30분~오후 5시 40분 / 101호

학부모 기도회

매 주일 12시 40분 / 504호

2018년도 수험생을 위한 수능기도회가 다음과 같이 열린다.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란다.

1. 토요기도회 : 11월11일(토)

오전10시 501호

2.수능 당일 기도회

11월16일(목) 오전 8시30분~오후 5시40분

또한 중·고등부는 학부모 기도회를 매 주일 12시 40분, 2부 예배 후 504호에서 모이고 있다.



1.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하옵소서
2. 건강과 집중력을 주셔서 마지막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공부한 내용들이 잘 생각하게 하옵소서
3. 심은대로 거두는 진리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시험을 치르게 하옵소서
4.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미래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5.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국제적인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6.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2018년도 대입 수험생

최 건 김인교 김준교 박희원 송인혁 김은초 황수지 백시진 류형선 김민지 조영훈 김지수 김정인 권태훈 오원준 장지윤 서정덕 송윤희 하준후 김명은 김명찬 한상혁 심재용 신재영 신완서 이 은 구현준 김지은 장수미 김건희 김수연 신서호 공지성 이현범 정윤주 서정우 이주호 전제현 이상헌

성도님들은 수능학생 한 명, 한 명 이름을 호명하시면서 뜨겁게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도고를 원하시는 학생이 있으면 순례자 yoolulu@hanmail.net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회복을 위하여

교회 사랑의 열기를 확인하였습니다

교회가 많은 송사에 휘말려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법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임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모금에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호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당회의 결의를 심분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먼저 지면을 통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기도하여 주시고 지원하여 주심으로 성도님들의 이러한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어서 속히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모두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날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성도님들의 깊은 교회사랑에 우리 당회원 모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17년 11월 5일
당회 서기 노훈환 장로 드림

종교개혁5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종교개혁의 뿌리를 생각하고 전통을 이어나가길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회(대표회장 이종윤 목사)는 7개 신학회(한국기독교학회,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한국개혁신학회, 한국루터학회, 한국칼빈학회, 한국웨슬리학회) 등 진보와 보수, 주요 학풍을 망라한 7개 학회와 함께 지난 10월 20-21일 경기도 광주 소망수양관에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종교개혁과 오늘의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주제 강연에는 남아공 케이프타운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자유케 하는 개혁신학(예영)' 저자인 존 드 그루시 박사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말씀과 성령의 변혁운동으로서 종교개혁', 한국 루터대 교수인 리노 말테 박사가 '한국 개신교회의 개혁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후 '종교개혁 전통에서 본 한국교회 개혁과 연합'이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대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심상법 박사 사회로 김재성·박일영·이정숙 박사, 송태근·이수영·정주채 목사 등 목회자와 신학자 각각 3명씩 참가했다.

이종윤 대표회장은 한국 대표적 신학회 7개가 함

께 모여 학술대회를 여는 것에 대해 "이는 단순히 500년 전 종교개혁 신학을 연구하고 전승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시각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모색하고자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다.

이 대표회장은 "우리나라 선교사 수가 미국 다음 이라는데, 신학자 수도 4천여 명으로 영국과 독일, 프랑스보다 많고 미국보다 조금 적다"며 "최근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지만, 신학자들은 보수와 진보를 아울러 학문적 토론을 펼치면서 아름답게 연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상법 회장은 "예전에는 학회들이 업적과 연구 위주의 발표에 중점을 뒀다면, 최근에는 가장 뜨거운 사회이슈인 통일과 동성애 문제를 조금씩 다루면서 학문의 상아탑에만 갇히지 않고 '교회를 위한 신학'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7개 신학회가 함께 모인 것은 교리를 일치시키자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의 뿌리를 더 생각하고 전통을 이어감으로써 500년 전의 종교개혁을 기념하기 위함"이라고 소개했다.

(편집부)



사명자의 기도

사명자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장호림 권사 (제1권사회장)

주님!

교회의 출입조차도 순조롭지 못한 긴장 속에서도 흥해작전을 승리로 이끄신 지난 여름을 기억하며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가을,

사명자대회를 통해

우리 모두는 온 힘을 다해 각자의 처소에서

조국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메마르고 황량함 속에서도

우리 모두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절히 간구하며

믿음의 성도들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을 품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각자의 믿음의 탐을 쏟아나가 주저함 없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이 절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

사명자의 본분을,

사명자의 역할을,

사명자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사명자에게 주신 좁은길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손 내밀어 일으켜 주셨습니다

주님!

서울교회 사명자기도기간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조국이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사랑하는 서울교회가 진정으로 거듭나기를,

우리 모두는 Coram Deo의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인도 하옵소서





청년1부 총동원주일을 은혜 중에 마치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정상준 성도
(청년 1부 회장)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10월 29일 청년 1부에서는 사명자대회 기간을 맞아 교회의 어려움으로 떠나간 청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길 바라며 총동원주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총동원주일 중에 서준권 목사의 특강을 통해 주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선한 것인지 배우며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년1부를 섬겨주시는 교사 분들의 기도와 가르침 그리고 교회의 아낌 없는 후원으로 이번 행사에 많은 청년들이 청년부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기쁨의 자리로 나아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는 이 때에 청년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 안에서 함

께 연합하기를 소망합니다. 서준권 목사의 특강 중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 133:1) 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거하며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서로 연합하여 믿음을 지키길 소망합니다. 청년 세대의 회복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성도 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회복과 더불어 하나님의 청년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청년들이 다시 연합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모든 청년들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고 그 청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문화의 기독교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혁!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부터 『세계복음화』 『교회천국화』 『문화의 기독교화』 를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로 성도들에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다룬 영화 <루터> 를 소개한다. 개혁과 변화의 시대를 이끈 위대한 지도자 '마틴 루터'를 통해 2017년, 과연 우리의 믿음은 바로 세워져 있는가 되돌아보고 진정한 믿음의 방향을 찾기 바란다.

상영관은 롯데시네마 브로드웨이(신사)6관, 대한극장11관(중구 퇴계로), 서울극장10관(종로 돈화문), 메가박스 송파파크 하비오이다.



금주의 사명자대회 성경통독표

11/6 (월)	엡5	엡6	빌1	빌2	빌3	빌4	골1	-
11/7 (화)	골2	골3	골4	살전 1	살전 2	살전 3	살전 4	-
11/8 (수)	살전 5	살후 1	살후 2	살후 3	딤펴 1	딤펴 2	딤펴 3	-
11/9 (목)	딤펴 4	딤펴 5	딤펴 6	딤펴 1	딤펴 2	딤펴 3	딤펴 4	-
11/10 (금)	딤펴 1	딤펴 2	딤펴 3	몬1	히1	히2	히3	-
11/11 (토)	히4	히5	히6	히7	히8	히9	히10	히11

▲ '성경통독표는 매주 절취선대로 잘라서 본당 앞 기도신청함에 넣으면 된다.'

Bus Metro Walking

운동에 동참합시다!

등정

■ 박정선 은퇴장로 (전 단국대음대학장)은 11월7일 (화) 오후7:30에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한국예술가곡진흥회주최의 "우리시 우리노래" 가곡의 밤에 신작 가곡 발표를 한다.

■ 금주의 식사 : 서은석 집사 김미성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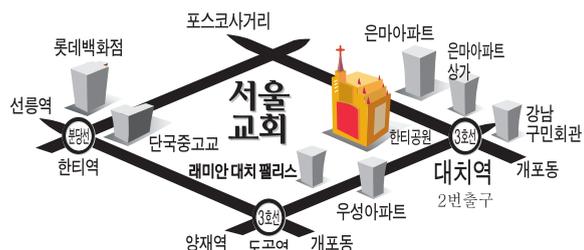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우리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2.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 모두 사명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3.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워지고 이 땅에 전쟁의 위협 사라지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본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